

錢乙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尹憲重·金容辰*

I. 緒 論

韓醫學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 동안에 걸쳐 이룩하고 이어온 소중한 民族醫學이며, 世界醫學 영역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韓醫學은 오랜 세월의 臨床을 통한 체계적인 理論과 무수한 治療經驗을 갖추어 우리 민족의 健康增進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다¹⁾.

韓醫學 理論은 陰陽五行學說의 심오한 영향을 받아 整體觀念을 主思想으로 하여 臟腑經絡의 生理와 病理를 기초로 辨證論治하는 理論體系를 갖추고 있으며, 체계적인 理論確立은 春秋戰國時代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黃帝內經》(以下內經이라 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內經》은 春秋戰國時代에 이르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이 모두 현저한 발전을 이루던 사회적 상황에서 저술된 것으로 당시까지의 醫療成就와 治療經驗을 종합하여 韓醫學의 독특한 理論體系를 확립하였으며, 韓醫學發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²⁾.

韓醫學 發展過程에서 볼 때 兩晉, 南北朝에서 唐, 五代에 이르기까지의 醫學이 《內經》의 理論의 기초위에서 진일보하여 臨床經驗을 累積시킨 시기라고 본다면, 宋代 醫學은 앞의 臨床經驗의 기초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理論上의 탐구와 발전을 진행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傷寒論》以後 약 700~800년이 경과하는 동안 臨床知識이 累積되어 疾病의 발생과 發展過程에 대한 인식, 治療 및 處方用藥의 法則把握에 대해 큰 진보를 하였으니 이들은 옛 理論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理論을 창조하여 臨床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³⁾.

宋代 印刷技術의 혁신은 醫學著作을 다량으로 출간케 하였으니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醫書를 校訂, 刊行하거나 醫家 개개인이 허다한 연구와 저술을 하여 古醫籍을 정리하거나 方書를 編著하거나 專門書를 저작하여 醫學發展에 기여하였다⁴⁾. 이 시기 醫學各科의 成就是 이미 病因學, 診斷學에서 발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臨床各科 또한 크나큰 성과를 거두어 저명한 專門醫家 및 專門書籍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寶漢卿이 撰한 寶太師全書(瘡瘍經驗全書), 李迅의 集驗背疽方 등은 外科專門書요, 陳文中이 撰한 幼幼新書, 錢乙이 撰한 小兒藥證直訣 등은 小兒科專門書요, 陳自明의 婦人良方大全은 婦人科專門書요, 著者未詳의 產育寶慶方은 產婦人科專門書이다⁵⁾.

錢乙은 四十餘年間 小兒科에 專業하여 臨床經驗이 풍부하였으며, 小兒의 生理, 病理의 특징을 파악하여 臨證治療의 중요한 기준을 만들어 後世 小兒科學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니 “錢乙幼科, 冠絕一代”라고 칭하였다. 그는 “小兒의 生理, 病理는 成人과 달라 五臟六腑는 成而未全하고 全而未壯하여 易虛易實, 易寒易熱해지기 쉬운 것이 특징”이라 하였으며, 著書로 《傷寒論旨微》五卷, 《嬰孺論》百編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망실되었고, 《小兒藥證直訣》三卷이 後世에 전하나 이는

1)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사의학교실 : 中醫歷代各家學說, 卷上, p. 1.

2) 印會河 主編 : 中醫基礎理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 1.

3)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 中國醫學史, 1997, pp. 299~300.

4) 甄志亞 :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 60.

5) 甄志亞 :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 64.

金完熙 外編 : 漢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82, p.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그의 제자 閻季忠이 錢乙 생전의 論述 및 方劑를 수집하여 編集한 것으로 上卷은 脈證治法을, 中卷은 醫案을, 下卷은 方劑를 論하였다⁶⁾.

錢乙의 學術思想은 <內經>과 歷代諸家學說을 계승하고 자신의 풍부한 臨床經驗을 합하여 형성된 것이니 “該刮古今, 又多自得”이라 할 수 있고, 小兒의 生理, 病理 및 辨證施治와 制方用藥 등에 창안한 바가 많아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그 論述內容 또한 小兒科學의 범위를 초월하였다⁷⁾.

이처럼 錢乙은 小兒科學의 창시자라 불릴 수 있을 만큼 小兒科 영역에 기여한 바가 크나 아직까지 그에 관한 研究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著者는 錢乙의 生涯와 著述, 學術思想과 그가 後世에 미친 影響 및 臨床醫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본 中間發表에서는 錢乙의 生涯와 著述 및 學術思想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던 바 얻은 바가 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生涯 및 著書

1. 生涯

錢乙의 字는 仲陽으로 北宋明道元年(1032年)에서 政和三年(1113年)까지 살았다는 說⁸⁾과 北宋景祐二年(1035年)에서 政和七年(1117年)까지 살았다는 說⁹⁾이 있으나 그의 生卒에 대하여 具體적으로 考證할 방법은 없으나 그가 北宋時代에 活動하였음은 알 수 있다.

錢乙의 先祖는 원래 錢塘(지금의 浙江省 杭州) 사람으로 五代十國時代의 吳越王 錢鏐(852~932)의 친척이다. 錢乙은 일찍이 祖父를 따라 북으로 옮겨 山東 鄆州(지금의 山東 鄆城 東平)에 거처를 정하였다. 父親의 이름은 顥로 鍼灸를 매우 잘하

는 醫生이었으나 평소 술과 노는 것을 좋아하여 나중에는 이름을 숨기고 해상으로 유랑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錢乙의 나이 3歲였으며, 母親 또한 일찍이 세상을 뜨게 되니 姑母가 그가 홀로됨을 애석하게 여겨 그를 거두어 養子로 삼았다¹⁰⁾.

錢乙은 讀書를 하면서 자라게 되었고, 姑母夫 呂君의 영향을 받아 醫學을 공부하였다. 呂氏가 죽기전 가족의 일을 錢乙에게 이야기하게 되니 錢乙은 生父를 찾기 위해 生父의 종적을 따라 해상으로 5~6회 왕래한 결과 드디어 父親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수년이 지나서야 生父를 집으로 모셔 봉양할 수 있었다. 그의 나이 30餘歲가 되었을 때 小兒科를 專業하기 시작하여 山東에서 그 이름이 높았으며, 50餘歲에는 전국적으로 저명한 醫家가 되었다. 錢乙은 皇室에서도 수차에 걸쳐 重病으로부터 卓越한 治療效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시골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信仰을 얻게 되었다¹¹⁾.

7) 北京中醫學院：中醫各家學說，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79，p. 4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中醫歷代各家學說，卷上，p. 70.

8) 俞景茂 編：兒科宗師錢仲陽，北京，中國科學技術出版社，1989，p. 1.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中醫歷代各家學說，卷上，p. 70.

9) 北京中醫學院：中醫各家學說，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79，p. 43.

陳大舜 主編：中醫各家學說，湖南科學技術出版社，1985，p. 190.

任應秋 主編：中醫各家學說，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8，p. 196.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中國醫學史，1997，p. 337.

甄志亞：中國醫學史，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79，p. 69.

賈維誠 編：三百種醫籍錄，哈爾濱，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1982，p. 306.

10) 俞景茂 編：兒科宗師錢仲陽，北京，中國科學技術出版社，1989，p. 1.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中國醫學史，1997，p. 337.

陳大舜 主編：中醫各家學說，湖南科學技術出版社，1985，p. 190.

11) 俞景茂 編：兒科宗師錢仲陽，北京，中國科學技術

6) 賈維誠：三百種醫籍錄，哈爾濱，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1982，p. 306.

丁奎萬：東醫小兒科學，서울，행림출판，1985，p. 31.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中醫歷代各家學說，卷上，p. 70.

陳大舜 主編：中醫各家學說，湖南科學技術出版社，1985，p. 190.

元 豐中(1068年~1085年) 神宗皇帝의 長公主 女兒가 病을 앓았을 때 錢乙이 초빙되어 이를 治愈하니 '翰林醫學'을 제수받았으며, 다음해에는 皇子 儀國公이 "癩癧"을 앓게 되었는데 宮中御醫가 治療를 하지 못하여 長公主의 추천으로 錢乙이 초빙되어 黃土湯으로 治愈하니 '太醫丞'을 提拔하였다. 그 후부터 그의 명성은 더욱 드높아져 皇室官宦의 집안 뿐만 아니라 庶民百姓까지도 그를 찾게 된 결과 오래지 않아 病을 얻어 초빙을 사양하게 되었다¹²⁾.

哲宗皇帝時(1085年~1100年)에 다시 초빙되어 宮中으로 들어갔으며, 후에 周痺를 앓게 되어 元 佑癸酉(1093年)에 모든 것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錢乙은 일생동안 두차례 皇室의 초빙을 받아 대략 10年정도 궁중에서 생활한 외에는 주로 민간백성들을 대상으로 의료를 베풀었다. 錢乙이 診療를 행함에 있어 가까운 이웃부터 멀게는 百數十里까지 往診하였으니 老小를 막론하고 그를 찾아와 매일 門前成市를 이루어 그 명성을 드날렸다. 40餘年間 많은 臨床經驗을 하면서 부단히 그의 經驗을 綜合하여 1113年 愼 後世에 저명한 醫書로 傳하는 《小兒藥證直訣》(以下 直訣이라 함.)을 撰하였다¹³⁾.

2. 著書

錢乙은 《直訣》八卷 외에도 《傷寒論指微》五卷, 《嬰孺論》百篇 등을 저술하였으나 後兩書는 오래 전에 失傳되었고, 오직 《直訣》만이 閻季忠이 編輯하여 後世에 전하고 있다¹⁴⁾.

閻季忠은 宋 大梁(지금의 河南 開封)사람으로 관직이 宣敎郎까지 올랐다. 閻氏의 先祖는 宋 眞宗 治平年間(1064年~1067年)에 과거에 급제하여 山東 須城(東平附近)에서 관직에 있을 때 錢氏를 알게 되었다. 당시 閻의 나이 4, 5歲정도였으며, 평상시에 病이 많아 錢氏가 수차례 治療하여 주었다. 閻이 장성한 후에 錢氏의 學問을 研究하면서 錢氏가 저술한 方書를 收集하였다. 그러나 當時 錢氏의 나이는 적지 않았기에 그 書를 傳함이 쉽

지 않아 10餘個의 方藥을 收集하였다. 宋 徽宗 大觀年間(1107年~1110年)에 閻季忠은 宮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다시 錢氏의 醫論, 醫案, 醫方 및 各種抄本 등의 資料를 收集하여 數十條의 論證을 얻었으며, 나중에는 雜方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錢氏가 말년에 저작한 것으로 이는 젊은 날 京城 開封에서 보여주었던 것보다는 우수한 것이었다. 閻氏는 收集한 資料들을 서로 參考하여 중복된 것은 빼고, 차례로 改定하였으며, 錯誤는 訂正하고, 方言은 大衆에 통속되는 언어로 바꾸어 上, 中, 下 三卷으로 編成하였다. 上卷은 脈證治法을, 中卷은 治療한 病案을, 下卷은 諸方을 記載하여 대략 1119년에 完成하였다. 책 뒤에는 閻季忠의 《小兒方論》과 董汲의 《小兒斑疹備急方論》各一卷과 劉跂가 撰한 《錢仲陽傳》을 附하였다. 이는 韓醫學에 있어 비교적 이른 시기의 小兒科 疾病을 辨證論治한 專書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현존하여 전해오는 原本形式이 보존되어 있는 小兒科 專門書籍이다. 本書는 閻氏의 見解가 일부 있으나 체계적으로 錢氏 原著의 內容을 比較하였으니 이는 韓醫學에서의 小兒科學 發展을 研究하는 중요한 資料가 되며, 小兒科學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¹⁵⁾.

現存하는 《直訣》版本은 倣宋本, 聚珍本, 互校本의 三種이 있다.

倣宋本은 宋本을 影刻한 것으로 현재에는 淸 康

12)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1.

陳大舜 主編 : 中醫各家學說,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5, p. 190.

任應秋 主編 : 中醫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p. 197.

13)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1.

14)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

任應秋 主編 : 中醫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p. 197.

陳大舜 主編 : 中醫各家學說,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5, p. 190.

15)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2~3.

熙起秀堂本, 光緒年間重刻本 등이 있다. 聚珍本은 清代 紀昀 등이 明代 《永樂大典》에서 모은 것으로 《直訣》이라 명하였으며, 현재에는 武眞殿聚眞本(殿刻本)과 復刻本 등 數種이 있다. 互校本은 周學海가 倣宋本과 聚珍本을 서로 비교한 후에 重刻한 版本으로 宋本의 原貌를 보존한 가운데 校刊하면서 서로 완전히 비교하였다. 最近에는 人民衛生出版社에서 比較 印刷出刊한 本이 유행하고 있는 版本이다¹⁶⁾.

本書는 口訣式 體로 기술되어 말은 간단하나 뜻이 깊어 明代以後부터 後人들이 注釋을 가하였으니 歷代 注釋本으로는 明代 熊宗立의 《類證注釋錢氏小兒方訣》, 薛己의 《校注錢氏小兒直訣》, 現代 張驥의 《小兒藥證直訣注》와 張山雷의 《小兒藥證直訣箋正》 등이 있다.

熊注本은 《直訣》을 類證編次하여 10卷으로 한 것(끝의 2卷은 閻季忠의 論證과 方劑)으로 간략히 注釋을 가하였으며, 薛注本은 原文을 잘막하게 쓰고 證候分類에 따라 注釋을 가하고 薛氏의 醫案을 부친 후 錢氏와 薛氏의 方劑를 열거하면서 錢氏의 小兒科學說 및 그 運用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張驥注本은 倣宋本의 注解를 살피고 歷代 有關醫家들의 論述을 選擇, 編輯하여 錢氏의 學說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錢氏의 方藥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를 하였다. 張山雷注本은 周學海의 互校本을 정확히 注를 달면서 原書의 精微를 상세히 설명한 외에도 시대가 부동함에 따른 古方의 套用이 不能하여 作者의 經驗을 더하여 取捨하였다.

이 외에도 董汲의 《小兒斑疹備急方論》 後記와 《閻氏小兒方論》, 《幼幼新書》, 《醫方類聚》, 《宋史·錢乙傳》 등에 錢氏의 佚文, 佚案, 佚方 등이 비록 일부뿐이나 散在되어 있으니 이 또한 錢氏의 小兒科學說을 연구하는 귀중한 資料로 볼 수 있다¹⁷⁾.

Ⅲ. 時代背景 및 歷史淵源

16)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3.

1. 時代背景

錢氏가 활동한 시기는 北宋社會가 잠시나마 비교적 안정되었던 시기로 封建經濟가 새롭게 발전하던 시기였으며, 火藥, 나침반, 活字印刷術과 같은 세계적으로 의미있는 三大發明品이 생산되어 응용되었다. 나침반의 발명은 航海事業의 발달과 더불어 文化와 醫藥의 교류를 촉진하였고, 活字印刷術의 발명과 종이를 만드는 사업의 발달은 文化의 발달과 科學技術의 전파를 촉진하여 醫學普及과 向上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당시 宋代技術의 발전은 醫藥學에서 두드러진 성취를 가져왔다¹⁸⁾.

趙氏 宋王朝는 강력한 중앙집권제로 통치하면서 文官을 기용하고 文士의 배양과 선발을 중시한 결과 文化科學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 중 일부 文士들은 醫學의 대열에 진입하여 醫學水準을 향상시켰으며, 醫學을 專業하지 않는 많은 지식인들도 醫學方面의 研究와 著述이 많았으니 유명한 政治家이자 文學家인 蘇軾(1036年~1101年), 沈括(1031年~1095年)은 《蘇沈良方》을 著述하였다. 이로 미루어 宋代醫學은 이미 지식인사이에 널리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선비들은 醫學을 알고 있음이 당시의 풍속을 이루어 “不爲良相, 當爲良醫”라는 說이 있으며, “儒醫”라는 名稱에는 이러한 뜻이 숨어있는 것이다¹⁹⁾.

醫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변화함에 따라 醫學理論의 발전 및 臨床經驗의 總括 또한 향상되었으니 이들은 醫學發展에 중요한 촉진작용을 하였다. 閻季忠 또한 官員으로 진출한 한 사람으로 비교적 높은 문화적 수양을 쌓았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錢氏의 醫論, 醫案, 醫方 등의 資料를 收集하였다. 그 후 閻氏는 이를 整理하여 《直訣》을 만들어 유포하니 도리어 錢氏의 原著가 없어지게 되었다²⁰⁾.

17)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3.

18)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4.

19)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4.

韓醫學은 <傷寒論>以後부터 七, 八百年間의 臨床知識의 축적을 통하여 疾病의 發生發展規律에 대한 認識과 治療 및 處方用藥規律에 대한 이해가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당시의 혁신적인 사상의 영향하에 醫學界에는 많은 저명한 革新家들이 출현하여 새로운 학과를 설립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으니 錢氏 또한 “新學叢興”의 영향하에 小兒科學說을 최초로 창립한 醫學家였다²¹⁾.

北宋時代 조정에서는 醫事管理를 개선하여 翰林 醫官院을 설립하고, 國家藥局을 개설하여 醫學敎育을 발전시켰으며, 古代醫籍을 整理研究하여 대량의 方書를 編纂하였다. <太平聖惠方>, <太平惠民和劑局方>과 <聖濟總錄>이 계속하여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韓醫學이 한층 새로워졌음을 의미한다²²⁾. 隋代 巢元方の <諸病源候論>에서는 이미 <小兒雜病諸候> 3卷 255候를 列舉하여 小兒의 護養 및 小兒科疾病의 病源, 症候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였으며, 唐代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²³⁾에서는 “若無于小, 卒不成大”라 認識하고 “先婦人小兒, 而後丈夫耆老”라 하여 婦女子와 兒童을 중시하였으며, 王燾의 <外臺秘要>에서는 “小兒諸疾”에 대한 86門을 列舉하였으니 이들은 錢氏가 小兒科學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⁴⁾.

北宋時代에는 香藥이 이미 대량으로 수입되어 원래 사용되던 處方이 날이 갈수록 변하게 되었으며, 元豐中(1078年~1085年) 太醫局에 소속된 藥局에서 處方하여 配本한 <和劑局方>이 널리 성행하여 “官府守之以爲法, 醫門傳之以爲業, 病者持之以立命, 世人習之以爲俗”이라 하였으니 <局方>中の 方劑는 주로 辛香溫燥한 藥物로 구성되었다. 閻季忠은 <直訣>序文에서 당시의 醫家들이 犀, 珠, 龍, 麝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局方>의 영향을 받았다 하였고, <在治總錄>은 이런 方書로 卷數는 대략 200이요, 方은 대략 20,000으로 하나의 方에 인용된 方이 여럿이고, 하나의 方中에 藥味가 亂雜하며, 동일한 方名의 藥物差異가 매우

커서 病者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없고, 醫生이 적용할 기준이 없어 辨證論治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方中에 病源에 대한 論述은 극히 적고 단지 일련의 證候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小兒의 體質 및 辨證論治에 대해서는 더욱 不利하다 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一部醫家들은 이런 측면을 개선하고자 무한한 方劑들을 체계적이고 간략하며 요령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理法方藥을 갖추어 臨床活用に 더욱 좋게 바꾸었으니 錢乙은 柔潤方面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종래에는 一家를 이룰 수 있었다²⁵⁾.

2. 歷史淵源

<宋史·錢乙傳>에서는 “乙始以 顧願方著山東”²⁶⁾이라 하였으며, 紀昀(1724年~1805年) 등은 <四庫提要>에서 “以 巫方氏 <顧願經>治小兒, 甚著于時”²⁷⁾라 하였으니 역대 수 많은 醫家들은 “蓋乙之著名幼科, 其源實出于 <顧願經>”이라고 인식하였다²⁸⁾.

<顧願經>은 隋 大業中(605年~618年)에 太醫 巢元方 등이 저술한 <諸病源候論·小兒雜病諸候·養小兒候>²⁹⁾에 “中古有 巫方, 立小兒 <顧願經>以占夭壽, 判疾病死生, 世所相傳, 始有小兒方焉”이라 하였으니 <顧願經>은 中古時代에 巫方の 저

21)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5.

22)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5.

23) 孫思邈 :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 73.

24)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5.

25)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5~6.

26) 錢乙 : 小兒藥證直訣(河間劉跂 撰 : 錢仲陽傳), 서울, 醫聖堂, 1994, p. 9.

27) 錢乙 : 小兒藥證直訣(四庫全書目錄提要), 서울, 醫聖堂, 1994, p. 6.

28)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6.

29) 南京中醫學院 校釋 : 諸病源候論校釋 卷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0)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4~5.

서로 小兒의 疾病을 治療하는 元祖로 볼 수 있다. 《顛顛經》 2권이 傳한다 하나 이는 《永樂大典》에 輯出하는 것으로 撰한 사람의 이름이 없고, 세상에 별도로 傳하는 것이 없으며, 또한 《諸病源候論》에 열거된 各候와도 부동하다. 《千金方》, 《外臺秘要》, 《醫心方》 및 《太平聖惠方》 등에는 모두 各醫家의 醫方이 광범위하게 수록되어 있으나 그 중에는 현재 傳하는 《顛顛經》의 方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歷代史志를 살펴보면 《唐藝文志》以前에는 모두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宋藝文志》에 이르러 《師巫顛顛經》 2권의 기재가 있다. 이로 미루어 《顛顛經》은 대체로 唐末宋初의 사람이 師巫氏를 假托하여 저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³⁰⁾.

현재 傳하고 있는 《顛顛經》과 《直訣》을 서로 살펴보면 그 내용이 一脈相通한 점이 있으니 《顛顛經》에 “凡孩子三歲以下，呼爲純陽……”의 설명이 있고, 《直訣》에도 “純陽”이라는 말이 나타난다. 《四庫在要》中 “乙以爲小兒純陽，無煩益火”³¹⁾라 한 것은 紀昀 등이 언급한 것으로 錢氏의 독창적인 견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顛顛經》과 《直訣》과는 서로 차이가 있으니 錢氏의 小兒生理病理에 대한 認識은 陰陽學說을 근간으로 하며, 《顛顛經》은 道家의 영향을 받아 小兒의 “純陽”, “元氣未散”을 언급한 것으로 이들은 서로 구별되는 점이 있고, 또한 錢氏는 五臟의 虛實寒熱證治를 주장한 반면, 《顛顛經》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小兒變蒸에 대한 논술도 《諸病源候論》, 《千金方》, 《外臺秘要》 및 《醫心方》과 《顛顛經》과는 부동하다³²⁾.

方劑에서 살펴보면 《顛顛經》에서는 小兒驚病과 같은 證을 治療함에 있어 虎睛을 위주로 한 네 가지 方劑(虎睛丸, 又虎睛丸, 二十二味虎睛丸, 保腫丸)가 있으나 《直訣》에는 虎睛을 활용한 方이 없으며, 《顛顛經》과 《直訣》의 方劑中 牛黃丸, 調中丸, 胡黃連丸은 同名의 方劑이나 그 構成과 主治가 서로 완전히 부동하다. 《顛顛經》의 牛黃

丸은 小兒의 胎驚과 癩 및 或心熱을 治療하며 牛黃, 龍腦, 馬牙硝, 鐵焙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直訣》의 牛黃圓은 小兒의 疳積을 治療하며 雄黃, 天竹黃, 牽牛末로 구성되어 있다. 《顛顛經》의 調中丸은 孩子諸疳이나 或熱攻冲心, 肺氣急, 晝夜有汗, 日漸羸瘦, 不知乳食을 治療하며 柴胡, 茯苓, 人蔘, 木香, 桂心, 大黃, 枳殼, 鱉甲, 甘草로 구성되어 있으나 《直訣》의 調中圓은 곧 《傷寒論》 理中丸(甘草用量은 半減)이다. 胡黃連圓 또한 兩書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³³⁾.

小兒病의 論述에 대해 살펴 보면 《顛顛經》에서는 火丹(丹毒)의 論述이 비교적 상세하여 15候가 열거되어 있으며, 鷄子白, 生油를 善用하면서 藥을 분말로 하여 外塗한다 하였으나 錢氏는 火丹을 丹瘤라 칭하였으며 그 論述 또한 비교적 簡單하고 治療는 白土(또는 滑石), 寒水石을 분말로 하여 米醋 或 新水로 調塗한다 하였다³⁴⁾.

이로 보아 《顛顛經》이 《直訣》의 學術淵源중 하나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太平御覽》에서는 《史記·扁鵲傳》을 인용하여 이르기를 “顛顛醫”는 小兒醫와 동일하다고 하였으니 《宋史·藝文志》의 《錢乙傳》에 언급된 “錢乙始以顛顛方著山東”에서의 “顛顛方”은 小兒方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錢氏 당대에는 別本의 《顛顛經》이 세간에 傳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直訣》의 學術見解로 부터 錢氏의 學術思想에 대하여 살펴보면 錢氏는 《內經》, 《傷寒論》, 《金匱要略》, 《神農本草經》 및 《太平聖惠方》 등과 같은 書籍의 有關한 내용을 계승하였으며, 40餘年間의 小兒科 臨床經驗을 總結하여 《直訣》을 이루었으니 閻季忠은 “該括古今, 又多自得”이라 하였다³⁵⁾.

31) 錢乙：小兒藥證直訣(四庫全書目錄提要)，서울，醫聖堂，1994，p. 7.

32) 俞景茂 編：兒科宗師錢仲陽，北京，中國科學技術出版社，1989，pp. 6~7.

33) 俞景茂 編：兒科宗師錢仲陽，北京，中國科學技術出版社，1989，p. 7.

34) 俞景茂 編：兒科宗師錢仲陽，北京，中國科學技術出版社，1989，p. 7.

30) 俞景茂 編：兒科宗師錢仲陽，北京，中國科學技術出版社，1989，p. 6.

《直訣》의 五臟五行 理論은 《內經》과 一脈相通한 점이 있어 臟腑病機, 寒熱補瀉 및 制方遣藥 등이 모두 《內經》과 合致하는 부분이 많으니 錢氏가 小兒科 面部望診에 있어 “左腮爲肝, 右腮爲肺, 額上爲心, 鼻爲脾, 頰爲腎. 赤者, 熱也, 隨證治之.”³⁶⁾라 한 것은 《素問·刺熱篇》의 “肝熱病者, 左頰先赤, 心熱病者, 額先赤, 脾熱病者, 鼻先赤, 肺熱病者, 右頰先赤, 腎熱病者, 頤先赤. 病雖未發, 見赤色者刺之”³⁷⁾의 내용에 그 根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錢氏는 張仲景의 《傷寒論》을 비교적 심도있게 연구하여 《傷寒論指微》一書를 저술하였으나 애석하게도 세상에는 傳하지 않는다. 《直訣》에서는 張仲景의 方藥을 유독 많이 활용하였으니 예를 들면 小兒의 胃寒瀉白, 腹痛腸鳴, 吐酸水, 不思食을 治療하는데 調中圓과 溫中圓을 활용하였으니 이는 《傷寒論》 理中丸과 藥味가 相同하나 生薑과 甘草의 用量 및 用法에 차이가 있을 뿐으로 調中圓은 甘草의 用量을 半減하였으며, 溫中圓은 生薑을 활용하지 않고 生薑汁을 활용하였다. 小兒의 肺熱, 手招眉目鼻面을 治療하는 柑桔湯은 《傷寒論》 桔梗湯과 藥味가 相同하며 단지 制量의 구별만 있을 뿐으로 桔梗湯에서는 桔梗一兩, 甘草二兩을 활용하여 少陰病咽痛不瘥者 및 肺痿, 肺痛咳吐膿血者를 治療하는 반면 柑桔湯은 桔梗二兩, 甘草一兩을 활용하여 肺熱을 治療하는 것으로 前者는 瀉熱解毒, 利咽止痛하며, 後者는 開泄肺氣, 以散其熱하는 것이다. 藿香散(藿香葉, 麥門冬, 半夏麴, 炙甘草, 一方에는 生石膏가 있음.)은 麥門冬湯(麥門冬, 人參, 半夏, 甘草, 粳米, 大棗)에서 유래한 것으로 胃虛有熱의 證을 治療하며, 특별히 制方한 地黃圓은 《金匱要略》의 腎氣丸에서 肉桂, 附子를 去하고 만든 것으로 小兒의 胎怯, 解顛, 行遲, 語遲 등과 같은 證을 治療하는 것이다. 이처럼 錢

氏는 張仲景의 方藥을 靈活히 運用함으로써 小兒科의 典范을 創立하였다³⁸⁾.

이 외에도 《太平聖惠方》도 錢氏의 學術思想에 지대한 影響을 미쳤다. 《太平聖惠方》은 992년에 만들어져 《直訣》보다 약 120餘年前에 만들어진 것으로 北宋 翰林醫官院에서 광범하게 收集한 민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方 및 各種 方書를 기초로 하여 王懷隱 등이 編寫하였다. 本書에는 小兒科 病方例가 編輯되어 있고, “急驚風”, “慢驚風”과 같은 명칭이 있으며, 《直訣》과 制方 用藥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直訣》과 《太平聖惠方》의 “小兒疳渴, 吃水不止”를 治療하는 膽鬱圓은 藥味가 서로 같고, 小兒疳瘦腹大를 治療하는 木香圓은 《太平聖惠方》中の “治小兒氣疳, 腹脹煩熱, 大便難”의 檳榔丸과 비교하였을 때 豆蔻一味만 많으며, 肥熱疳을 治療하는 胡黃連圓은 《太平聖惠方》의 小兒五臟羸瘦, 毛髮乾黃, 吃食不恒을 治療하는 雄黃丸과 比較하면 雄黃一味만 적다. 이 외에도 大同小異한 方劑가 《太平聖惠方》에 많이 보이니 《太平聖惠方》中の “顛顛方”은 錢氏의 學術淵源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⁹⁾.

IV. 學 術 思 想

1. 治療를 배우는 方法과 생각하는 方 向

錢氏의 一生은 治療를 배우에 있어 臨床實踐을 중시한 외에도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專一爲業, 垂四十年”하면서 옛 것을 模範으로 하되 이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創造하였으며, 書籍을 보고서 古수를 충분히 한 것이다.

36)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6.

37)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66.

38) 俞景茂 編: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8.

39) 俞景茂 編: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8~9.

35) 任應秋 主編: 中醫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p. 197.

俞景茂 編: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7~8.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中醫歷代各家學說, p. 70.

1) 어려움을 알면서도 계속 精進하여 오직 이를 業으로 삼음.

과거에는 兒科를 痘科라고도 칭하였으며, “寧治十男子, 莫治一婦人; 寧治十婦人, 莫治一小兒”⁴⁰⁾라 하였듯 小兒 病의 治療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閻季忠은 小兒治療에 있어 “五難”이 있다 하였으니, “첫째는 6歲以下는 《內經》에 이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근거를 삼을 經典이 없음이요, 둘째는 小兒의 脈은 매우 微弱하여 이를 근거로 하기 어렵고, 診察時에도 자주 놀라고 울어서 脈象에 영향을 주므로 세심하게 살피기가 어려움이요, 셋째는 小兒의 骨氣가 완전히 形成되지 않고 形體도 완전히 바르지 않으며 자주 울고 웃는 등 形態가 일정함이 없어 望診할 때 病情을 풀어나가기가 곤란함이요, 넷째는 小兒는 말을 능히 하지 못하고 하는 말도 신뢰하기 어려워 問診時에 病情을 풀어나가는 것이 또한 어려움이요, 다섯째는 小兒의 臟腑가 柔弱하고 易虛易實, 易寒易熱하여 用藥이 마땅치 않아 病情의 변화가 쉽기 때문이다”⁴¹⁾라 함이 이를 말한다.

錢氏는 兒科醫生過程에 있으면서 그 내용을 깊이있게 體得하고 “脈難以消息求, 證不可以言語取者, 襁褓之嬰, 孩提之童, 尤甚焉!”⁴²⁾, “投劑小差, 悖謬難理”⁴³⁾라 하여 兒科學을 독립적으로 발전시켜 一門의 臨床專門科를 이루었고, 뜻을 바꾸지 않고 한 길에 전념하여 어려운줄 알면서도 계속 매진하여 오직 이 한 가지를 業으로 삼았으며, 40餘年間 노력하여 마침내 切脈按證과 探源應變의 協助法을 總結하여 최초로 兒科學을 체계적으로 정돈된 一門의 專科로 형성하여 후세에 小兒科學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⁴⁴⁾.

2) 옛 것을 模範으로 하되 이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創造함.

인류의 지식은 모두 옛 사람의 기초를 계승하여 부단히 발전시킨 것이다. 小兒科學에 있어 錢氏는

發見, 發明, 創造 및 前進한 것도 있으나 그는 옛 것을 模範으로 하되 이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創造하였다. 北宋時期前에는 小兒病과 有關한 資料가 많지 않으니 《史記》에 扁鵲이 일찍이 小兒醫를 지냈다는 記錄이 있고, 孫思邈의 《千金方》, 王焘의 《外臺秘要》에 小兒病과 有關한 記載가 있으며, 唐宋末初에 師巫를 假托하여 지은 《顯顯經》이 있으나 이들은 小兒科學에 겨우 접근한 것으로 이 또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많은 지식과 臨床經驗 및 綜合的인 分析과 分析을 綜合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으며, 새로운 學科理論으로 昇華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錢氏는 “于書無不窺”⁴⁵⁾, “爲方博達, 不名一師”⁴⁶⁾하여 70餘歲가 되어 肢體가 偏廢하고 座臥하여 일어나서도 못하였어도 때때로 史書雜說을 열람하였다. 평소에도 方藥의 配伍運用에 주의를 기울였고, 本草에 대하여도 깊이가 있어 능히 “辨證闕誤”하였다. 누군가가 不同한 藥을 가지고 와 가르침을 청하면 그는 “出生本末”에서부터 “物色名貌”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解答을 詳細하고 明快하게 하였으니 일이 끝난 후 本草書를 조사하여 보면 과연 그의 설명과 서로 부합하였다⁴⁷⁾.

당시 醫生은 斑疹 一病에 대하여 “恬不爲慮”라 하여 깊은 研究를 하지 않았으나 錢氏가 斑疹의 危惡을 인식하여 “與驚搐, 傷寒二癩大同而用藥甚異”⁴⁸⁾라 하였듯 이는 小兒科學上의 하나의 어려운

41) 錢乙 : 小兒藥證直訣(原序), 서울, 醫聖堂, 1994, p. 4.

42) 錢乙 : 小兒藥證直訣(董汲 : 董氏小兒斑疹備急方論), 서울, 醫聖堂, 1994, p. 113.

43) 錢乙 : 小兒藥證直訣(董汲 : 董氏小兒斑疹備急方論), 서울, 醫聖堂, 1994, p. 113.

44)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10.

45) 錢乙 : 小兒藥證直訣(河間劉跂 撰 : 錢仲陽傳), 서울, 醫聖堂, 1994, p. 12.

46) 錢乙 : 小兒藥證直訣(河間劉跂 撰 : 錢仲陽傳), 서울, 醫聖堂, 1994, p. 12.

47)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10~11.

48) 錢乙 : 小兒藥證直訣(董汲 : 董氏小兒斑疹備急方論), 서울, 醫聖堂, 1994,

40) 張介賓 :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 899.

問題였으며, 錢氏는 이에 대해 열심히 研究하였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70餘歲가 되어 그는 病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름있는 董汲이라는 醫生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그가 撰한 《小兒斑疹備急方論》一書を 받아보게 되었는데 이 때 錢氏는 이를 보고 “나에게는 이것이 평생토록 研究하게 한 問題였으나 당신은 이미 이를 研究하고 큰 成果를 거두었구나”⁴⁹⁾라고 경탄하여 말하면서 그 冊의 “後序”를 써 주었다⁵⁰⁾.

옛 것을 模範으로 하면서 현재의 것을 모두 통한 목적은 새로운 學說을 창조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옛 것을 배우면서 이에 얽매었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바를 또한 말하는 것으로 이는 學術發展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錢氏는 古人의 學說을 學問하는 방법에 있어 이에 얽매이는 것에 반대하고 과감하게 이를 버리고 前人을 超越하여 결국에는 그 才能을 표출하여 독창적으로 一家를 이루게 되었다⁵¹⁾.

急慢驚風과 같은 大病을 당시의 醫界에서는 分辨하지 못하여 急驚風에 쓰는 方藥으로 慢驚風을 治療하는데 활용하였다. 錢氏는 “凡急慢驚, 陰陽異證, 切宜辨而治之. 急驚合涼瀉, 慢驚合溫補. 世間俗方, 多不分別, 誤小兒甚多.”⁵²⁾라고 認識하고 肝主風, 心主驚의 理論을 정립하여 驚風學說을 창립하였다. 《直訣》에는 한군데도 經典에 根據하여 引用한 곳이 없고, 전부 臨床經驗의 體得이니 이 또한 錢乙이 과감히 새로운 것을 創造한 精神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⁵³⁾.

3) 書籍을 보고서古今을 충분히 함.

錢氏는 각고의 노력으로 공부하였으며, 여러 書籍을 열람하여 “于書無不窺”⁵⁴⁾하면서 《內難》, 《傷寒》 및 隋唐의 各家學說의 研究에 골몰하여 현재의 것을 가볍게 함으로써 옛 것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아울러 옛 것을 가볍게 함으로써 현재의 것에 대해서도 두텁게 하지 않았다. 小兒의 特徵에 근거하여 辨證, 診法, 治療原則, 處方 및 遣藥과 같은 여러 방면에 있어 모두 독특한 見解와 臨

床經驗을 結合하여 새로운을 창조하였으니 “賅括古今, 又多自得”⁵⁵⁾이라 이를 수 있다⁵⁶⁾.

錢氏는 中年以後에는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점차 자기의 經驗을 體系化하여 저술하였으나 自己의 年數가 가벼움을 느끼고 “而不肯輕傳其書”하였으며, 쌓는 것을 두텁게 하되 표출하는 것은 가볍게 하였다. 晩年에 爐火純青의 시기가 되었을 때 그 著述한 바는 더욱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閻季忠은 이에 감격하여 말하기를 “晩年所得益妙”⁵⁷⁾라 하였다. 所謂 “新篇日日成, 舊句時時改”한 것이니 이로 인하여 《直訣》一書を 編輯하여 완성하게 되었으며, “活幼之眞諦, 全嬰之規範”이라는 名聲을 얻게 되었다⁵⁸⁾.

2. 學術思想의 特徵

1) 學術思想

① 百姓을 救濟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널리 베품.

錢氏는 어려서 不幸을 만났고, 본래 羸疾이 있었기에 그는 아이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아이들에게 베푸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알았다. 고모부 呂君을 따라 다니면서 醫學을 공부할 때 小兒의 發病率이 높고 診斷과 治療가 더욱 어려움을 통찰하고 “投劑小差, 悖謬難整, 而醫者恬不爲慮”⁵⁹⁾라 하였다.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49) 錢乙：小兒藥證直訣(董汲：董氏小兒斑疹備急方論, 後序), 서울, 醫聖堂, 1994, p. 113.

50) 俞景茂 編：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11.

51) 俞景茂 編：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11.

52) 錢乙：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10.

53) 俞景茂 編：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11~12.

54) 錢乙：小兒藥證直訣(河間劉跂 撰：錢仲陽傳), 서울, 醫聖堂, 1994, p. 12.

55) 錢乙：小兒藥證直訣(原序), 서울, 醫聖堂, 1994, p. 4.

56) 俞景茂 編：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12.

57) 錢乙：小兒藥證直訣(原序), 서울, 醫聖堂, 1994, p. 5.

58) 俞景茂 編：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12.

夭折하는 것을 보고 그는 小兒의 疾患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또한 小兒의 方脈에 대해 더욱 열정을 기울였으며, 鍼砭外에도 藥物의 內服이나 外治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다⁶⁰).

北宋時代에는 小兒科學이 없었고 內科學의 범주에서 이를 취급하고 있었다.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小兒病與大人不殊，惟用藥有多少爲異.”⁶¹이라 하여 小兒病과 成人의 病이 다른 점이 없고 藥劑량이 약간 輕減하거나 藥性이 약간 차는 정도의 다른 점이 있다 하였으며, 小兒와 成人의 不同한 生理病理의 특징에 대해서는 구별하지 않았다. 錢氏는 이들을 채취하여 對照, 比較하는 방법으로 같은 가운데서도 다름을 찾아 小兒의 “臟腑柔弱”, “筋骨嫩怯”, “五臟六腑, 成而未全”, “全而未壯”과 같은 生理인 특징 및 病患後의 “易虛易實”, “易寒易熱”과 같은 病理인 특징을 깨달아 五臟을 結合하여 寒熱虛實을 辨別하고 主治方劑를 확립하여 內科學의 기초위에 小兒科學을 독립된 學科로 나눌 수 있게 하였다⁶²).

② 細心하게 관찰하여 정확하게 推理함.

錢氏는 능히 새로운 學科理論을 창립하였으니 이는 또한 다른 정확한 생각들과 유관하였다.

錢氏는 小兒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推理를 통한 반복적인 臨床經驗으로 《內經》의 整體觀에 의해 自然과 人體를 하나의 整體로 보았다. 이러한 “天人相應”의 “自然人體觀”은 自然과 人體의 서로 유사한 점을 비교하고 自然界를 관찰하여 나타나는 보편적인 規律로부터 人體를 推理하며 이로부터 人體를 인식하는 것이다. 錢氏는 天象을 자주 관찰하고 五運六氣를 깊이있게 연구하느라 일찍이 “夜宿東平王冢巔, 觀氣象, 至逾月不寐”⁶³하였다. 自然界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하고 이로부터 人體의 生理病理變化를 推斷하였으며, 疾病의 治療規律을 구하였다. 예를 들면 吐瀉와 같은 證이 夏秋에 發病한 者는 주로 臟腑의 寒熱失調로 因한 것이며, 春冬에 發病한 者는 주로 傷風으로 因한 것이다.

59) 錢乙：小兒藥證直訣(董汲：董氏小兒斑疹備急方論，後序)，서울，醫聖堂，1994，p. 113.

따라서 同一한 夏秋의 吐瀉라도 臟腑의 寒熱錯雜의 程度에 따라 不同한 것이니 治療 또한 寒溫補瀉이 달라야 한다 하였다⁶⁴).

사람과 自然은 하나의 整體이며, 人體內部 또한 하나의 整體이니 臟腑間의 相關關係는 五行의 生克乘侮規律로써 演繹하여 推理할 수 있다. 하나의 臟이 병들면 其他臟腑의 協調關係가 무너지게 되며, 하나의 臟을 治療하여 다른 臟을 안정케 하거나 혹은 하나의 臟은 補하고 하나의 臟은 瀉하거나 혹은 먼저 하나의 臟을 治療한 후 다시 다른 하나의 臟을 治療하거나 혹은 하나의 方中에 다른 臟까지 考慮하여 겸하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整體의인 觀點에서 그 평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⁶⁵).

人體內部的 활동은 비록 보이지 않으나 “下有漸洳, 上生葦蒲”⁶⁶하는 것이니 外部에서 관찰하는 것으로 內部를 알 수 있다. 錢氏의 小兒科 望診中 “面上證”⁶⁷, “目內證”⁶⁸은 바로 “司外揣內”의 方法인 것이다. 이런 方法들을 사용하여 小兒의 生理機能의 聯關關係를 관찰하고 歸納하므로써 錢氏는 小兒五臟辨證의 근본을 창립하였다. 《內經》의 五臟五行 및 陰陽의 消長矛盾의 觀點으로 人體를 肝, 心, 脾, 肺, 腎과 같은 五大系統이 相互關聯하고 對立統一하는 整體로 보았으며, 小兒의 生理的인 機能과 病理變化를 綜合分析하고 生理研究와 病理探討를 파악하여 하나로 연결하였으니 때로는 生理로부터 病理를 推斷하고, 때로는 도리어 病理

60) 俞景茂 編：兒科宗師錢仲陽，北京，中國科學技術出版社，1989，p. 12.

61) 孫思邈：備急千金要方，서울，大星文化社，1989，p. 73.

62) 俞景茂 編：兒科宗師錢仲陽，北京，中國科學技術出版社，1989，pp. 12~13.

63) 錢乙：小兒藥證直訣(河間劉跋 撰：錢仲陽傳)，서울，醫聖堂，1994，p. 13.

64) 俞景茂 編：兒科宗師錢仲陽，北京，中國科學技術出版社，1989，p. 13.

65) 俞景茂 編：兒科宗師錢仲陽，北京，中國科學技術出版社，1989，p. 13.

66)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서울，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1981，p. 335.

67) 錢乙：小兒藥證直訣，서울，醫聖堂，1994，p. 6.

68) 錢乙：小兒藥證直訣，서울，醫聖堂，1994，p. 6.

로부터 生理를 判斷하였다. “黑箱”과 같은 조건을 타개하지 못할 때는 계속 반복하므로써 內在된 聯關係를 推斷하여 成人과는 다른 특징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특징은 症候 또한 반영하는 것이니 예를 들어 “脾主困. 實則困睡, 身熱, 飲水; 虛則吐瀉, 生風”⁶⁹⁾과 같은 條文은 먼저 그 主症을 명확히 한 연후에 기타 症候와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한 것이며, 虛實寒熱의 속성에 따라 治療에 主안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가장 效果的인 調節反應을 보이는 五臟補瀉方으로 五臟의 病理變化를 調節하여 相應하는 反樞手段을 창립하였다⁷⁰⁾.

2) 理論樹立

①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찾아 小兒의 특징을 明澈하게 함.

“小兒病與成人不殊, 惟用藥有多少爲異”⁷¹⁾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小兒는 成人의 축소판이 아니며, 일정한 特殊性을 가지고 있다. 小兒時期에는 生長發育過程에 있어 生理病理를 막론하고 陰陽의 對立統一, 消長轉化 등은 모두 成人과 다른 면이 있으니 年齡은 작아도 그 차이는 크다. 이러한 특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小兒科學을 발전시켜 一門의 독립된 학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先決條件이다. 錢氏는 《靈樞·逆順肥瘦》篇의 “嬰兒者, 其肉脆, 血少氣弱”⁷²⁾과 《諸病源候論·小兒雜病候》의 “小兒臟腑之氣軟弱, 易虛易實”⁷³⁾ 등을 기초로 病을 診察하는 과정에서 小兒는 生理的으로 “肌骨嫩怯”, “臟腑柔弱”, “五臟六腑成而未全 … 全而未壯”, “腎主虛”하며, 病理的으로 “易虛易實”, “易寒易熱”함을 깨닫고 “五臟虛實證治”를 수립하여 小兒臟腑虛實寒熱의 病理特徵을 체계적으로 논술했으며, 臨床辨證論治를 결합하여 小兒科學의 生理病理 基礎理論을 제정하였다⁷⁴⁾.

錢氏는 小兒疾病의 治療에 대해 寒熱虛實을 辨別함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때로 妄攻峻補, 損陽竭津을 禁하였다. 예를 들면 疳病을 誤下太過한 所致로 認識하고 “小兒易虛易實, 下之既過, 胃中津液耗損, 漸令疳瘦”⁷⁵⁾, “小兒之臟腑柔弱, 不可痛擊, 大

下必亡津液而成疳”⁷⁶⁾이라 하였으며, 만일 下法이 不可하지 않은 症은 반드시 “量大小虛實而下之, 則不至爲疳也”⁷⁷⁾라고 하였다. 또한 虛實腹脹에 대한 治療는 過熱助火, 過寒損陽을 주의하면서 病이 나오면 投藥을 중지하니 過한 投藥은 不可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小兒易爲虛實, 脾虛不受寒溫, 服寒則生冷, 服溫則生熱, 當識此勿誤也.”⁷⁸⁾라 하여 자주 小兒臟腑의 虛實寒熱變化에 주의하였으니 이는 小兒科學의 辨證論治에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요령이라 할 수 있다⁷⁹⁾.

② 四診을 合參하되 望診을 더욱 중시함.

錢氏는 小兒를 “脈難以消息數, 證不可言語取”⁸⁰⁾라고 인식하여 小兒의 診法으로 별도의 一格을 갖추었다. 그는 望診을 중시하였으나 어느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四診의 合參을 중시하여 辨證論治하면서 “察脈按證雖有定法, 而探源應變, 自謂妙出意表”⁸¹⁾라 하였다. 小兒의 診治에 대하여 錢氏는 일정한 法度를 존중하였으며, 靈活하게 활용하였으니 이는 그의 풍부한 臨床經驗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⁸²⁾.

70)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13~14.

71) 孫思邈 :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 73.

72)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 275.

73) 南京中醫學院 校釋 :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066.

74)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14~15.

75)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2.

76)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2.

77)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2.

78)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5.

79)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15.

80) 錢乙 : 小兒藥證直訣(董汲 : 董氏小兒斑疹備急方論), 서울, 醫聖堂, 1994, p. 113.

81) 錢乙 : 小兒藥證直訣(董汲 : 董氏小兒斑疹備急方論), 서울, 醫聖堂, 1994, p. 113.

82)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15.

69)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3.

錢氏は疾病에 대한 內臟의 반응은 각기 그 主하는 바가 있지 않고 相互 連繫하며, 體外의 有關한 器官과 部位로 반영되고, 脈象에도 반영된다고 인식하였다. 이로 인하여 望診 및 聞診, 問診, 切診과 “五臟辨證”을 서로 連結하여 小兒疾病을 診治하였다. 小兒科 病症中 6種의 常見脈象(脈亂, 不治; 弦急, 氣不和; 沈緩, 傷食; 促急虛驚; 浮爲風; 沈細爲冷)을 歸納하였을 뿐 아니라 面色과 眼口唇舌 등과 같은 外候, 形體動作, 汗 및 吐瀉物 등을 살펴 規律性을 구하였다. 예를 들어 “目內證”과 “面上證”의 兩條에서 面部 赤色은 熱症인데 目內色赤은 心熱이고, 淡紅은 心虛熱이며, 靑은 肝熱이고, 黃은 脾熱이며, 目無精光은 腎虛라고 하였다⁸³. 이 외에도 “雜病證”과 “不治證”이 있다 하여 “目赤兼靑者, 欲發搐”, “目直而靑, 身反折強直者, 生驚”, “咬牙甚者, 發驚” 등은 雜病證이요⁸⁴, “顛腫及陷”, “鼻乾黑”, “魚口氣急”, “鼻開張”, “吹鼻不噴” 등은 不治證⁸⁵이라 하였다. 또한 동일한 “面皸白”을 觀察하고서 “面皸白無精光, 口中氣冷, 不思食, 吐水”는 “胃氣不和”이고⁸⁶, “面皸白色弱, 腹痛不思食……下利”는 “胃冷虛”이며⁸⁷, “面皸白, 心腹痛, 口中沫及清水出, 發痛有時”는 “蟲痛”이라 하였다⁸⁸. 이런 동일한 “面皸白” 하나에도 臨床症候를 結合하여 數種의 不同한 病症을 구분한 것이다. 이 외에도 “黃相似”는 “諸疸皆熱, 色深黃者是也; 若淡黃兼白者, 胃怯, 胃不和也”⁸⁹라 하였다, “吐乳”는 “吐乳, 瀉黃, 傷熱乳也. 吐乳, 瀉靑, 傷冷乳也. 皆當下”⁹⁰라 하였으며, “弄舌”은 “脾臟微熱, 令舌絡微緊”⁹¹이라 하였고, “肺熱”은 “手招眉目鼻面”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⁹². 이로 미루어 보아 錢氏는 四診中에서도 望診을 더욱 중시하였으며 五臟辨證을 긴밀히 결합하여 小兒의 疾病을 鑑別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小兒科의 五臟辨證綱領을 確立함.

《直訣》에서는 小兒科疾病의 辨證論治에 대하여 五臟辨證을 綱領으로 하였으니 辨證綱領은 五臟을 기초로 症候에 의거한 虛實寒熱의 辨別을 論

治의 準칙으로 삼았다. 그 중에서는 “風, 驚, 困, 喘, 虛”를 肝, 心, 脾, 肺, 腎 五臟의 주요한 症候特徵으로 歸納하였고, 虛實寒熱로 臟腑의 病理變化를 판단하였으며, 五行으로 五臟과 氣候時令의 相互關係를 말하였고, 五臟補瀉의 諸方을 治療의 基本方劑로 하였다⁹³. 번잡한 것을 간략하게 하여 그 要點을 찾아냈으니 이는 실제 辨證方法과 부합되는 것이며, 기타 辨證方法의 기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心主驚하니 叫哭發熱, 渴飲抽搐은 火氣有餘의 實證으로 治療는 마땅히 清心瀉火하여 上升된 氣火를 억제하니 瀉心湯을 활용하고, 口中氣溫, 心胸部熱, 避熱就冷, 俯臥, 咬牙는 心火有餘하고 心陰不足한 實中挾虛한 症이니 治療는 마땅히 清心養陰, 利水導熱하니 導赤散을 활용하며, 目淡紅 등과 같은 陰虛血熱에 外邪를 兼한 者는 生犀散을 활용하고, 面黃頰赤, 身壯熱, 心神恍惚는 安神圓으로 清熱泄火, 重墮鎮怯하여 那氣를 泄하면서 那臟을 補한다 하였다.

肝主風하니 目直視, 大叫哭鬧, 呵欠, 突然悶絕, 頸項強直은 肝經有餘의 實證이니 大靑膏로 發散하거나 或은 大黃圓으로 微下하고, 已見抽搐, 脈洪實者는 瀉靑圓으로 瀉肝定搐하거나 抱龍圓으로 平肝木, 防驚風한다. 肝은 人體의 生發之氣를 主하는데 小兒가 初生에는 草木이 바야흐로 싹을 틔우 듯 生氣가 蓬勃하니 補肝하는 方은 없다. 肝虛氣鬱해도 呵欠하고, 肝虛胃弱해도 咬牙하는데 이 때에는 補腎滋肝, 壯水榮木하는 方法을 活用하니 地黃圓을 활용한다.

脾主困하며, 脾病은 多寐少納, 大便泄瀉 등과 같은 證이 흔히 나타난다. 倦怠多臥, 身熱飲水는 脾

84)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30.

85)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32.

86)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3.

87)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3.

88)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3.

89)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18.

90)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19.

91)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6.

92)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4.

93)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16.

83)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6.

의 濕熱로 인한 實證이니 瀉黃散으로 脾經의 實熱을 瀉하며, 吐瀉不止, 久成慢驚은 脾氣衰弱한 虛證이니 益黃散으로 理氣健脾, 化濕瀉腸한다. 脾陽虛者는 調中圓, 溫中圓으로 補虛溫中하고, 脾氣虛者는 異功散으로 補氣理滯하며, 脾虛氣陷하여 口渴便瀉하는 者는 白朮散으로 益氣生津, 升陽止瀉하고, 胃陰이 傷하고 氣逆嘔吐하는 者는 藿香散으로 養胃陰, 止胃逆한다. 脾는 後天의 本이요, 生化의 根源으로, 小兒의 生機는 蓬勃하고 發育은 迅速하나 臟腑가 幼嫩하고 消化機能이 比較적 떨어지므로 營養을 要求하는 量은 크나 消化負擔은 큰 모순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小兒는 스스로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생활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니 일단 冷熱飢飽失度하면 脾胃의 納運機能이 쉽게 문란해진다. 이 외에도 其他 臟腑疾病에 藥物使用이 부당하면 종종 脾胃의 運化機能에 영향을 미치거나 或은 그 中氣를 損傷케 하니 小兒內傷은 脾胃病이 가장 많으므로 錢氏는 脾胃의 寒熱虛實을 調治하는 많은 方劑를 창립하여 小兒의 胃汁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小兒의 脾陽이 損傷되는 것을 防止하고자 하였으며, 輕重을 잘 살피고, 극히 미세한 부분도 명확히 하여 症에 대한 藥을 투여함에 病機에 적중되도록 하여 患兒가 病과 藥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였다.

肺主喘하니 만약 外邪를 感受하거나 肺熱이 內盛하면 胸悶氣急而喘, 口渴(或不渴)하는데 이는 肺實의 症으로 治療는 마땅히 補氣益陰하였다. 瀉肺 清熱하는 瀉白散으로 壯熱飲水喘悶하는 表證이 없는 肺實證을 治療하였으며, 開泄肺熱하는 甘桔湯으로 小兒의 手搥眉目鼻面의 肺熱證을 治療하였다. 二方은 모두 肺經實熱의 症에 활용하는데 하나는 裏를 瀉하고, 하나는 外를 散하는 것이다. 久嗽咽乾, 痰少不豁하는 肺虛症에는 阿膠散으로 補陰宣肺氣하였다.

腎主虛하니 腎虛에는 兩目無神, 畏光, 面色皸白, 骨弱, 行遲齒遲, 顙門遲合, 頭大額方, 病後失音 등 과 같은 症이 나타나므로 地黃圓으로 補益腎陰하였다. 瘡疹黑陷은 腎陰虛하고 邪氣實한 本虛標實이나 이 또한 地黃圓으로 腎中의 眞水를 補하였다. 腎은 先天의 本으로 小兒의 稟賦는 父母에게

根源하며, 출생한 뒤에는 後天 水穀의 滋養에 의지한다. 稟賦가 不足한 즉 腎氣가 먼저 虛하여지며, 後天의 調養을 失하면 腎精이 填充되지 못한다. 腎은 蟄臟으로 五臟六腑의 精氣를 받아 이를 藏하는데 小兒의 臟腑는 柔弱하여 腎中의 陰血은 不足해지기 쉽다. <素問·上古天真論>에 이르기 를 “女子七歲腎氣盛, 齒更髮長 …… 丈夫八歲腎氣實, 髮長齒更”⁹⁴⁾이라 한 것은 小兒의 腎氣가 아직 充實하지 않고 欲念이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錢氏는 小兒의 특징을 “腎主虛”를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특별히 腎陰虛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腎陽虛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直訣·腫病>에서 “腫病”의 病機에 대해 설명하기를 腫病은 腎陽虛하여 水氣가 泛濫하면 도리어 脾土를 侮하고, 心火를 克制하며, 아울러 上部의 肺로 凌한 것이라 하여 腎의 寒水之氣가 過盛한 實證이지만 그 本質은 腎陽虛라 하였다.

錢氏는 비록 五臟의 分症을 강조하였지만 五臟間의 相互連繫 및 臟腑에 대한 四季氣候의 영향 또한 중시하였다. 예를 들어 抽搐一症에 대해 “目連扎不搐, 得心熱則搐. 治肝, 瀉青圓; 治心, 導赤散主之.”⁹⁵⁾라 하였으니 이는 推搐이 비록 肝風으로 인하여 발하기도 하나 心熱을 득한 후 熱이 盛하면 搐이 發하니 治療는 마땅히 心肝의 熱을 清瀉한다 하였으며, “假令肺虛而痰實, 此可下. 先當益脾, 後方瀉肺也”⁹⁶⁾라 한 것은 治療에 있어 虛中挾實한 症이 있을 때는 먼저 그 中氣를 補한 後 그 痰實을 瀉한다는 것으로 邪氣를 祛하고 正氣가 損傷되지 않게 하려면 正氣가 먼저 強하면 邪氣는 能히 祛할 수 있다는 이유인 것이다. 또한 “肝病秋見, 肝強勝肺, 肺怯不能勝肝, 當補肺脾治肝. 益脾者, 母令子實故也. 補脾, 益黃散; 治肝, 瀉青圓主之”⁹⁷⁾라 한 것은 後世에서 所謂 “培土生金抑木”의 “隔一療法”의 先驅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五臟에서 肝은 補하지 않고, 腎은 瀉하지 않는다 하여

94)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11.

95)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7.

96)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32.

97)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6.

補肝할 때는 地黃圓을, 瀉腎할 때는 瀉青圓을 활용하였으니 이는 곧 “乙癸同源, 肝腎同治”, “瀉肝即所以瀉腎, 補腎即所以補肝”하는 治療의 元祖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錢氏가 五臟間 및 五臟과 自然과의 關係가 하나의 통일된 整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④ 清涼을 자주 활용하면서 脾胃에 주의함.

小兒의 疾病은 外因으로는 주로 疫癘의 邪氣를 感受한 것이고, 內因으로는 흔히 飲食所傷 및 先天稟賦不足으로 야기되는 것이니 疾患을 앓은 후에는 쉽게 熱化의 證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治療側面에 있어 錢氏는 小兒의 生理病理 특징을 중시한 외에도 小兒의 熱性病의 治療에 대해 清涼解毒, 芳香開竅를 중시하였으며, 小兒의 內傷病의 治療에 대해서는 調理脾胃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學術理論의 기초는 비록 어렵지만 가치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瘡疹의 治療에 대해 “瘡疹屬陽, 出則爲順”⁹⁸⁾이라 認識하고 初起에는 妄下, 妄攻發은 適當하지 않다 하였으며⁹⁹⁾, 만약 熱毒이 旺盛하였을 때는 마땅히 百祥圓으로 解毒하고, 生犀磨汁으로 涼血하며, 抱龍圓으로 清涼開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⁰⁰⁾. 또한 急驚一症에는 涼瀉法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每飯 瀉心湯, 導赤散으로 瀉心火하고, 瀉青圓으로 瀉肝熱하며, 大黃圓으로 裏熱을 下하고, 利驚圓으로 痰熱을 下하며, 抱龍圓으로 開竅醒神한다 하였다¹⁰¹⁾. 이러한 것들은 錢氏가 이미 비교적 小兒의 熱病驚厥神昏을 救治하는 方藥에 有效하였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小兒內傷은 脾胃失調하여 나타나는 臨床的 意義를 지니고 있으니 “脾胃虛衰, 四肢不舉, 諸邪遂生”¹⁰²⁾한다 하였다. 錢氏는 小兒의 脾胃를 調治함에 매우 주의하였으니 虛羸, 積, 疳, 傷食, 吐瀉, 腹脹, 慢驚, 蟲 등과 같은 病은 모두 脾胃論治하는 것이며, 痘疹, 咳嗽, 黃疸, 腫病, 夜啼 등과 같은

病 또한 脾胃와 相關關係가 있어 이들 또한 脾胃論治하였다. 예를 들어 虛羸는 “脾胃不和, 不能食乳, 致肌瘦. 亦因大病或吐瀉後, 脾胃尙弱, 不能傳化穀氣也”¹⁰³⁾의 所致이고, 積은 “由乳食不消, 伏在腹中”, “脾胃不能傳化水穀”의 所致이며¹⁰⁴⁾, 諸疳은 “皆脾胃病, 亡津液之所作也”¹⁰⁵⁾이고, 腹脹은 “脾胃虛, 氣攻作也”¹⁰⁶⁾이며, 夜啼는 “脾臟冷而痛也”¹⁰⁷⁾라 하였다. 傷風으로 手足冷, 自利, 腹脹 하는 것은 “脾臟虛怯”의 所致이며¹⁰⁸⁾, 咳嗽는 “痰盛者, 先實脾”¹⁰⁹⁾이고, 黃疸는 “胃熱”, “胃怯”이며¹¹⁰⁾, 腫病은 “脾胃虛而不能制腎”¹¹¹⁾하는 것이니 이들은 脾胃失調가 各種 疾病을 誘發하는 중요한 인자가 됨을 말하는 것이며, 脾胃를 調治하는 것은 많은 小兒科 疾病을 治療하는 關鍵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錢氏는 먼저 脾胃를 調治하여 中氣를 회복시킨 後에 다시 그 本病을 治療하거나 或은 먼저 攻下한 후 다시 補脾하거나 或은 補脾하여 益肺, 制腎하는 治療法을 채용하였다. 예를 들면 “小兒虛不能食, 當補脾, 候飲食如故, 即瀉肺經, 病必愈矣”¹¹²⁾, “實食在內, 乃可下之, 畢, 補脾必愈”¹¹³⁾ 등이 이와 같은 것이다. 小兒의 脾胃病을 調治할 때 攻하되 正氣를 傷하지 않고, 補하되 邪氣를 碍하지 않으며, 冷을 去하되 너무 熱하지 않고, 熱을 去하되 너무 冷하지 않게 하는 등 消補를 兼施하고 寒熱을 并投하는 法을 채용하여 補하는 柔潤

99)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11.

100) 俞景茂 編: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19.

101) 俞景茂 編: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19.

102)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5.

103)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19.

104)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4.

105)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1.

106)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5.

107)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6.

108)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p. 14~15.

109)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0.

110)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18.

111)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9.

112)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37.

113)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42.

98)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13.

등과 같은 방법에 심력을 기울여 小兒脾胃의 虛實寒熱의 變과 燥濕升降의 性에 적용하였다.

이로 미루어 錢氏는 小兒의 脾陽을 중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胃中津液을 살피야 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약 吐瀉傷津, 內熱耗津, 誤治損津한다면 이들은 모두 胃陰을 亡失케 하여 口渴喜飲水, 身瘦, 皮乾, 昏睡, 露睛, 甚或發熱, 吐瀉, 汗出 등과 같은 證이 나타나게 되니 治療는 “當生胃中津液”하므로 玉露散으로 瀉熱益胃하는 法, 藿香散으로 甘香養胃하는 法, 白朮散으로 升陽生津하는 法, 香瓜丸으로 甘潤護胃하는 法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¹¹⁴⁾ 하였으니 이는 養胃陰學說을 창립한 始祖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稟賦虛弱, 腎氣不足 또한 小兒의 內傷病을 야기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腎主骨하니 《直訣》에서는 龜背, 鷄胸, 行遲, 腎怯失音, 解顛 등과 같은 病은 모두 腎을 調治한다 하면서 地黃圓으로 滋補腎陰, 強壯筋骨하여 骨格의 生長發育을 리케 하였으며, 久病이 治愈되지 않으면 반드시 腎과 關係가 있어 疳症後期에 形瘦骨立하는 것 또한 地黃圓으로 腎을 緩圖케 한다고 하였다¹¹⁵⁾.

⑤ 古方에 巧妙하였으며, 과감히 새로운 方을 創製함.

錢氏는 평생동안 方藥에 고심하여 小兒科 方劑學에 대한《直訣》의 貢獻은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 制方遣藥의 특징은 곳곳에 五臟의 虛實寒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邪氣를 祛하는데 힘쓴다는 原則下에 處方을 하면서 攻伐하되 正氣를 損傷시키지 않고, 補하되 邪氣가 滯하지 않도록 하거나 或은 消補兼施하거나 或은 寒熱并投하면서 柔潤方面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여 당시 醫學界에서 香燥한 藥物을 남용하는 偏向을 전환시켰다¹¹⁶⁾.

錢氏는 자주 小兒科에서 古方을 활용하였으며, 處方時 小兒의 生理病理 특징에 대해 주의하였다. 예를 들면 異功散은 六君子湯에서 半夏를 去하고 만든 계통으로 補하되 滯하지 않게 하고 溫하되

燥하지 않게 하는 效能이 있다. 小兒의 脾는 항상 不足하여 虛實이 쉽게 나타나고 津液이 쉽게 損傷되므로 이는 小兒科에서 더욱 마땅하다 할 수 있다. 또한 《金匱要略》의 腎氣丸¹¹⁷⁾에서 桂附를 去하고 地黃圓을 만들었으니 이는 壯水之主, 以鎮陽光하는 方劑로 小兒의 陰常不足에 적합하되 益火하지는 않는 특징이 있다.

錢氏가 古方을 활용함에 있어 靈活하게 변통한 것은 또 하나의 특색이다. 예를 들어 古方의 香連丸은 黃連의 苦味로 降以清熱하고, 木香의 芳香으로 烈以行滯하는 熱痢를 治療하는 方이나 錢氏는 여기에 溫澁止瀉하는 豆蔻를 가하여 豆蔻香連圓이라 명명하였고, 苦溫澁腸하는 訶子肉을 가하여 小香連圓이라 명명하였으며, 祛寒하는 白附子를 가하여 白附子香連圓이라 명명하였고, 豆蔻仁, 訶子肉, 沒石子를 가하여 沒石子圓이라 명명하였다. 上述한 다섯 개의 處方은 비록 小兒의 腹痛瀉痢諸症을 함께 治療하나 寒熱通澁의 性質에 변화가 있다. 이 외에도 錢氏는 香連丸에서 木香을 去하고 陳橘皮를 加하여 橘連圓이라 명하여 小兒의 疳瘦를 治療하였으니 清熱理氣의 方이 消食和氣, 清火治疳하는 方劑로 변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斟酌하여 通變하고 活用하는 것이 精微로웠음을 살피 볼 수 있다¹¹⁸⁾.

錢氏는 古方을 자주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감히 새로운 處方을 창제하였다. 새로운 處方을 창제할 때 臟腑機能의 恢復과 相互間의 整體關係에 주의하였으니 예를 들어 瀉白散과 같은 경우 桑白皮로 瀉肺化痰, 降逆平喘한 외에도 地骨皮를 사용하여 滋陰退熱하였으며, 甘草, 粳米로 益胃和中하였다. 本方은 實한 것을 瀉하면서도 虛를 생각하고, 瀉肺하면서도 脾를 생각한 것이니 이로 인하여 李時珍은 “瀉肺諸方之准繩”이라 하였다. 또

115)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0.

116)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0.

117) 張仲景(蔡仁植 譯) : 金匱要略精解, 大邱, 東洋綜合通信大學教育部, 1974, p. 53.

118)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1.

114)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0.

한 益黃散과 같은 경우 靑陳皮, 木香으로 理氣燥濕, 芳香化濁하면서 訶子로 滋腸하고, 甘草로 守中하였으니 비록 補하는 藥物을 하나도 使用하지 않았으나 方名은 補脾하는 것으로 立方의 深奧한 뜻을 생각할 수 있다¹¹⁹⁾.

錢氏는 《素問·標本病傳論》¹²⁰⁾의 “謹察間甚, 以意調之, 間者並行, 甚者獨行”의 원칙에 따라 病勢가 危急하고 邪實熱盛한 症에 대해서는 다시 精專하는 方劑를 設法하였다. 예를 들어 瀉心湯은 苦寒한 黃連 하나만을 사용하여 心火를 直折하였고, 大黃圓은 大黃, 黃芩으로 中焦의 邪熱을 清瀉하였으며, 玉露散은 寒水石, 石膏, 甘草를 사용하여 胃火를 清瀉하였고, 白餅子是 滑石, 輕粉, 半夏, 南星, 巴豆를 사용하여 食積痰濕을 收下하였으며, 抱龍圓은 竺黃, 膽星으로 清熱化痰하고, 雄黃으로 祛痰解毒하며, 芳香開竅하는 麝香, 辰砂으로 安心神하여 小兒의 痰熱이 內壅하여 야기된 急驚實證을 治療하였다. 이러한 方劑들은 모두 그 治療效果가 廣大한 특징이 있으니 醫師는 處方에 얽매이지 않고 적절히 活用함이 마땅하다 할 수 있다¹²¹⁾.

劑型方面에 있어 錢氏는 丸, 散, 膏를 주로 사용하였다. 傳하는 135方中 丸劑 71方, 散劑 45方, 膏劑 6方, 外用方 7方, 湯劑 6方으로 이 方들은 小兒科 方劑學의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¹²²⁾.

3) 臨床經驗

錢氏는 五臟辨證을 강조하여 臨床에서 五臟病證에 규율적인 處方을 하였다. 예를 들면 心實證에는 瀉心湯을, 輕할 때는 導赤散을, 虛할 때는 安神圓을, 肝實에는 瀉青圓을, 虛에는 地黃圓을, 脾實에는 瀉黃散을, 虛에는 益黃散을, 肺實에는 瀉白散을, 虛에는 阿膠散을, 腎虛에는 地黃圓을 活用하였으며, 腎陰이 不足한 者는 熟地黃을, 肺熱氣喘에는 桑白皮, 馬兜鈴을, 手掐眉目鼻面에는 桔梗을, 咬牙, 尿赤에는 木通, 竹葉을, 上吐下瀉口渴飲水에는 薑香, 白朮, 人蔘, 葛根을, 寧心鎮驚에는 茯苓, 朱砂,

甘草를, 肝火熾盛에는 靑黛, 龍膽草를, 驚風에는 抱龍圓을, 夜啼에는 蟬花를, 腹中虛脹에는 川椒, 蝎尾를 活用하였으니 明代 呂復은 劉歧의 말을 거듭하여 말하면서 錢氏의 用藥에 대하여 “如李靖用兵, 度越縱舍, 卒與法合”이라고 비유하였다¹²³⁾.

① 咳嗽

咳嗽의 原因이 비록 많으나 錢氏는 寒熱虛實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여 外感寒邪나 或 肺經有熱, 新病多實, 久病多虛로 인식하였다. 咳嗽治法이 비록 많지만 “盛者下之, 久者補之, 更量虛實, 以意增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寒者는 溫散하니 麻黃湯, 百部圓이 마땅하고, 熱者는 清하니 甘桔湯이 마땅하며, 實者는 瀉하니 瀉白散으로 瀉肺熱하거나 葶藶圓으로 下肺氣하거나 百祥圓으로 下熱毒하거나 白餅子, 福銀圓으로 下痰涎乳食함이 마땅하고, 虛者는 補하니 阿膠散이 마땅하다 하였다. 醫案에 나타난 바를 살펴 보면 錢氏는 諸咳를 治療하는데 비록 補瀉兩法을 창립하였지만 瀉法을 活用할 때 단순히 瀉肺만을 한 것은 아니며 心火가 있을 때는 瀉心火를, 肝熱이 있을 때는 瀉肝熱을, 腸熱이 있을 때는 瀉腸熱하였으며, 補 또한 단순히 補肺만 한 것이 아니라 脾虛하면 補脾하고, 虛實挾雜하면 먼저 實脾한 後에 肺를 治療하며, 肺虛挾感하면 먼저 邪氣를 散한 後에 肺를 補하거나 或은 먼저 涎을 下한 後에 肺를 補하는 등의 방법을 活用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咳를 治療하는 方法에 있어 靈活한 運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²⁴⁾.

② 傷風

120)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125.

121)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2.

122)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2.

123)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2.

124)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22~23.

119)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1.

傷風辨證에 대해 錢氏는 다음과 같은 要領을 제시하였다. 病이 아직 表에 있으면 마땅히 發散하니 大靑膏를 활용하였고, 邪氣가 裏로 傳하거나 或은 裏實熱症이 있다면 오직 攻下하니 大黃圓이나 三黃圓을 활용하였으며, 風熱痰盛하고 腑實便秘者는 犀角圓으로 清熱疏導하나 어느 정도의 신증함이 필요하니 妄攻誤下하거나 或은 苦寒太過하여 小兒의 臟腑를 損傷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攻伐太過로 胃中虛熱하고 飲水無力하면 白朮散으로 胃中の 津液을 滋生하여 健康回復을 도모하였고, 熱邪가 心神에 영향하여 昏睡하면 抱龍圓으로 解毒開竅하며, 病後에 餘熱이 未淨하거나 或은 虛熱이 潮作하는 者는 地骨皮散을 활용하였다.

錢氏는 整體觀에 착안하여 小兒의 傷風重症(昏睡, 發熱, 呵欠, 頓悶)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傷風의 兼症(臟腑에 대한 傷風의 影響)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다. 手足冷, 大便自利, 腹脹 등과 같은 證이 겹하여 나타나면 이는 傷風에 脾怯(或은 食積을 兼)을 겸한 것이며, 만약 傷風하여 肺를 犯하면 悶亂, 喘息, 哽氣, 咳嗽가 나타나고, 搖心하면 驚悸가 나타나며, 腎과 겹하면 畏明하니 이는 모두 小兒가 根本적으로 臟虛하여 外邪가 쉽게 침습하여 유발된 것으로 治療는 風寒을 發散하는 외에도 臟虛한 일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니 때로는 그 本臟을 補하거나 때로는 그 母臟을 補하여야 비로소 誤治하지 않는다 하였다¹²⁵⁾.

③ 庖疹

錢氏는 庖疹(주로 天花, 麻疹, 水痘, 風痧, 奶麻, 丹痧 등과 같은 小兒의 發疹性 疾病)의 辨證에 대해 五臟分證에 입각하여 論하였으며, 初起의 症候뿐만 아니라 痘, 疹이 發出한 후에 나타나는 證을 모두 상세히 論하였으니 呵欠頓悶은 肝으로, 時發驚悸는 心으로, 乍涼乍熱, 手足冷은 脾로, 面目腮頰赤, 嗽嚏는 肺로 귀속하였으며, 水疱는 肝에, 膿疱는 肺에, 斑은 心에, 疹은 脾에 疹痘黑陷은 腎에

귀속하였다. 治療原則으로 “溫涼藥治之”, “不可妄下, 妄攻發”을 강조하였으니 그 목적은 邪毒을 外部는 疏散하고 裏는 清解하되 裏를 虛하게 하거나 或은 그 毒을 助하지 않으려는 까닭이었다. 庖疹이 輕한 者는 庖疹이 出하고 다른 症이 나타나지 않으면 用藥하지 않거나 藥을 활용하더라도 平和한 藥을 활용하여 護理함에 주의한 것이고, 三日後에도 不出하거나 或은 出하더라도 不快한 者는 微發하니 紫草散으로 開泄散風, 清解血熱하며, 만약 出하였으나 不快하고 熱盛하여 昏睡하면 抱龍圓을 활용하였고, 庖疹黑陷하면 百祥圓, 牛李膏를 사용하였으며, 吐血衄血이 나타나면 生犀磨汁을 복용케 하였다. 庖疹病後에 陰虛津傷하고 餘焰未盡하여 口齒로 上攻하면 五福化毒丹을 활용하였으며, 庖疹이 眼에 入하여 翳를 이루는데 輕하면 羊肝散을, 重하면 蟬蛻散을 활용하였다. 護理方面에 있어 飢餓 및 風冷케 하는 것은 不可하고 乳母 또한 입을 조심케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小兒로 하여금 飢餓하거나 風冷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哺乳 또한 비교적 平和롭게 하였으니 이는 外로는 다시 새로운 邪氣에 感受되지 않도록 함이요, 內로는 脾胃가 損傷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病期가 順利롭게 지나가는 것이 용이한 때문이었다¹²⁶⁾.

④ 吐瀉

小兒는 易虛易實, 易寒易熱하므로 吐瀉證은 變化가 신속하니 마땅히 세심히 辨證하여야 한다. 錢氏는 脾胃에 대한 氣候變化의 影響에 주의를 기울여 用藥의 寒熱溫涼을 氣候變化에 따라 改變하였으며, 또한 食乳, 嘔穢, 大便顏色 등과 같은 消化狀態 및 口渴, 身熱 등과 같은 全身狀態에 따라 臟腑의 寒熱虛實程度를 辨別하였다. 治療에 있어서는 錯雜程度에 따라 寒熱并用, 補邪兼施, 內外分治, 脾胃共調, 補液救津의 法을 채용하였다. 玉露散으로 直折胃熱, 透肌祛暑, 生津止瀉하였고, 益黃散으로 溫中健運, 和胃降逆, 調氣止瀉하였으니 兩方의 服用劑量은 病情의 寒熱錯雜程度에 따라 增

125)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3.

126)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23~24.

減하였으며, 服用法 또한 食前, 食後로 구별하였다. 이는 진정 꼭 들어맞도록 하면서 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핀 것으로 곳곳에서 脾胃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冬春의 傷風吐瀉는 흔히 小兒의 膜理가 緻密하지 못하고 臟腑가 嫩弱하여 風寒濕熱이 虛한 몸을 타 침입하여 腸胃에 客하여 이루어진다. 대개 身涼肢冷, 吐沫白綠水, 瀉青白色, 完穀不化, 硬氣畏出氣 및 睡時露睛 등과 같은 裏虛寒證이 나타나면 먼저 益黃散으로 溫中補脾, 調氣止瀉하여 脾陽이 回復되기를 기다려 다시 解表하였다. 身熱多睡, 吐瀉頻作, 煩渴不止, 乳食不進, 大便黃水 등과 같은 裏虛寒에는 먼저 白朮散을 類服하되 湯水를 兼하지 않음으로써 益胃生津, 升陽降火하여 泄瀉가 그치고 津液이 恢復되어 脾氣가 健壯해지면 다시 發表劑를 活用하였다. 身溫, 乍涼乍熱, 睡多氣粗, 咳嗽頓悶 등과 같은 風寒外束의 表證이 나타나고 內로 嘔吐腹瀉, 乳食不消, 大便黃白 등과 같은 食滯濕阻의 裏證을 겸할 때는 “此乃脾肺受寒, 不能入食”한 까닭으로 이 또한 表寒挾植의 證이니 이 때에는 먼저 發散藥을 活用한 후에 益黃散을 活用하였다.

初生兒의 吐瀉 또한 모름지기 虛實寒熱을 구별하였으니 吐瀉壯熱, 不思乳食하며 大便瀉下하는데 消化되지 않은 乳汁이 있는 것은 傷食한 까닭이니 마땅히 白餅子로 먼저 그 積을 下하고 岐로 개곳이 하여 남은 것이 없어진 후에 益黃散으로 和胃하였다.

小兒吐瀉의 寒熱虛實 辨別에 대하여 錢氏는 吐瀉物의 色(紅黃赤黑皆熱, 青白綠水爲寒, 不消化食物爲傷食)과 吐痰沫의 稠稀(稠涎爲熱, 稀涎爲寒) 및 睡時의 露睛(露睛者胃虛熱, 不露睛者胃實熱) 등으로 감별하였다¹²⁷⁾.

⑤ 疳證

錢氏는 疳證은 脾胃病으로 誤下太過하여 津液이 消亡한 所致로 인식하였으며, 小兒의 潮熱, 病癩,

傷寒에 調治가 不當하거나 攻下太過하거나 身體가 弱해진 뒤 다른 邪氣(蟲積, 食滯 등)가 침입하는 것들도 모두 疳을 이룬다 하였다.

錢氏는 五臟分證에 따라 理論을 정립하여 疳證을 脾疳(肥疳), 肝疳, 心疳, 肺疳, 腎疳, 筋疳, 骨疳의 7種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도 脾疳이 가장 많고, 그 症狀은 身瘦黃, 皮乾而瘡疥, 身, 耳, 鼻皆瘡, 瀉青白黃沫, 腹滿, 髮鬢作穗, 頭項細, 喜飲水한다 하였다.

疳證의 辨證論治에 있어 錢氏는 疳의 冷熱肥瘦新久를 辨別하는 것이 요령이라 인식하고 대개 初病은 肥熱疳이요, 久病은 瘦冷疳이니 冷者는 木香圓을, 熱者는 胡黃連圓을, 冷熱挾雜한 疳에는 如聖圓을 活用한다 하였다. 初病에 胃中의 津液이 적은 者는 白朮散을 多服하고, 五臟의 諸疳은 本臟의 母를 補하면서 疳을 治療하는 藥物을 加味하여 治療하며, 鼻下에서 耳까지 瘡이 생긴 者는 蘭香散, 白粉散을 外用한다 하였다¹²⁸⁾.

⑥ 腹痛

錢氏는 小兒腹痛證을 虛寒性腹痛, 食積腹痛, 蟲痛 등과 같은 三種으로 구분하였다. 虛寒性腹痛은 面色皸白, 體弱, 不思食或兼下利하니 治療는 溫中散寒, 補氣健脾하는 益黃散, 調中圓이 마땅하다 하였고, 食積腹痛은 口中氣溫, 面黃白, 多睡, 畏食, 大便酸臭하니 治療는 攻下積滯하는데 輕者는 消積圓을, 甚者는 白餅子를 사용하고난 후 다시 和胃한다 하였으며, 蟲痛은 腹痛發作有時, 面皸白, 口淡, 多沫, 易出清水하니 治療는 殺蟲止痛하는 安蛔散이 마땅하다 하였다.

小兒의 脾는 항상 不足하므로 胃氣不和, 飲食不消와 같은 證이 자주 나타나니 面色皸白, 目無精光, 口中氣冷, 不思食, 大便泄瀉, 甚則完穀不化하는 것은 脾胃가 虛寒한 까닭이니 治療는 益黃散이 마땅하다고 하였다¹²⁹⁾.

128)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5.

129)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25~26.

127)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24~25.

⑦ 腹脹

錢氏는 腹脹證은 脾胃不和하고 氣機失利한 것으로 인식하고 虛實, 虛中夾實로 辨別하였다. 虛脹은 脾虛中運無力하고 氣滯於中하여 腹脹하므로 益黃散으로 補하거나 或은 壅氣圓으로 점차 消하였으며, 만약 食積於中하고 氣機窒滯하여 脹하면 그 積을 攻下함이 마땅하니 積去하면 脹은 消하므로 白餅子로 下하였고, 虛中夾實은 脾虛한데다 食積을 겸한 腹脹으로 下積하니 輕하면 壅氣圓을, 重하면 白餅子를 사용하였다¹³⁰⁾.

⑧ 驚風

北宋以前에는 驚風을 癩證門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합하여 “驚癩”이라 칭하였으니 《太平聖惠方》에서는 驚風을 急驚, 慢驚으로 구분하였다. 錢氏는 “心主驚”, “肝主風”의 理論을 창립하여 急驚은 熱甚生風한 것이고, 慢驚은 脾虛肝木乘之한 것으로 兩者 모두 抽搐이 나타나게 된다고 인식하였으며, 이후의 대다수의 醫家들이 이 理論을 따르고 있다.

發搐은 모두 肝經의 病證이지만 肝自身の 病인지 其他 臟腑가 肝에 영향을 주어 나타난 病인지에 대한 研究와 分析이 필요하며, 錢氏는 發搐을 治療하면서는 肝을 治療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肝病者는 補腎治肝하고, 心病者는 補肝治心하며, 肺病者는 補脾治肝心하고, 腎病者는 補脾治心하여 寧肝하였다. 補肝腎할 때는 地黃圓을, 補脾에는 益黃散을, 治肝에는 瀉青圓을, 治心에는 導赤散, 涼驚圓을 활용하였다. 錢氏는 發搐의 시간과 疾病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여 早晨, 日午, 日晚, 夜間發搐으로 구분하였으며, 나타나는 證候를 綜合하여 不同한 治療方法을 시행하였다.

急驚의 病機를 총괄하여 말하면 “陽盛陰虛”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이를 나누어 말하면 “驚風痰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錢氏는 “小兒急驚者, 本因熱生于心. 身熱面赤引飲, 口中氣熱, 大小便黃赤, 劇則搐也. 蓋熱則風生, 風屬肝, 此陽盛陰虛也, 利驚圓

主之, 以除其痰熱”¹³¹⁾이라 인식하였으며, 또한 “小兒熱痰客于心胃, 因聞聲非常, 則動而驚搐矣. 若熱極, 雖不因聞聲及驚, 亦自發搐”¹³²⁾이라 하였으니 驚, 風, 痰, 熱은 急驚을 유발하는 四大要素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각자가 誘인이 되거나 또는 서로간에 相關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慢驚의 대다수는 各種 重病과 久病後나 或은 寒涼한 攻伐吐瀉하는 藥物을 過服하여 脾胃가 損傷하여 續發하는데 脾虛하면 肝風이 乘하게 되어 泄瀉驚厥이 나타나므로 脾風이라고도 한다. 錢氏는 慢驚을 가리켜 그 病機는 “無陽”으로 總括할 수 있다 하였으니 이는 “脾虛生風”하는 것이며 一種의 虛寒性 脾胃病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脈證治法”에 따라 6則의 “治案”을 제시하였는데 錢氏는 大青膏로 傷風發搐을 治療하고, 利驚圓으로 除痰熱하며, 瀉青圓으로 瀉肝火함으로써 急驚을 治療하였으며, 慢驚에는 枯薑湯, 宣風散, 溫白圓으로 解毒豁痰祛風함으로써 標를 治療하고, 益黃散 등으로 本을 治療하였다.

急慢驚 兩種은 서로 不同한 病證이므로 治法 또 한 구별되어야 한다. 錢氏는 “凡急慢驚, 陰陽異證, 切宜辨而治之. 急驚合涼瀉, 慢驚合溫補. 世間俗方, 多不分別, 誤小兒甚多”¹³³⁾라고 하면서 驚風을 治療하는 많은 方劑들의 대다수가 急驚風에 활용하며, 이 方劑들은 水銀, 輕粉, 辰砂, 冰片, 麝香, 牛黃 등과 같은 金石重墮 및 重竄走泄之味로 鎮驚平肝함으로써 標를 治療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一定한 毒性 副作用이 있어 부득이 處方을 활용할 때는 劑量을 잘 살펴 病이 그치면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閻氏小兒方論》에서는 이르기를 “治小兒驚風, 痰熱堅癖, 能不用水銀, 輕粉甚便, 如不得已用之, 僅去疾即止. 蓋腸胃易傷, 亦損口齒”¹³⁴⁾라고 하였고, 《小兒病源方論》에서는 또한 “輕粉味辛涼性冷, 下痰損心氣; 朱砂味甘性寒, 下涎損神氣. 二味相合, 雖下痰涎, 其性寒冷, 損心損神, 亦不可獨用

131)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10.

132)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10.

133)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10.

134) 錢乙: 小兒藥證直訣(閻氏小兒方論), 서울, 醫聖堂, 1994, p. 89.

130) 俞景茂 編: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5.

也。若兒臟受壯實，服之軟弱也；若兒胎受怯弱，服之易傷也。新生嬰兒下胎毒腫痰涎多致損害，皆是經，朱二味之所候也。”，**“確實，金石之品，雖善定神智，但令人發呆；冰麝香燥走竄，又最耗心液”**이라 하였으며，**《素問·腹中論》**¹³⁵⁾에서는 **“石藥發癩，芳香發狂”**이라 하면서 이를 服用하면 **“恐傷脾”**한다 하여 이를 경계하였다. **《直訣》**에 나타난 이런 類의 方劑와 錢氏의 用藥이 柔潤에 힘썼다는 주장은 急，慢驚에 妥當히 分別論治한다는 學術觀點과는 相互矛盾되는 듯하니 張山雷，熊宗立 등은 이런 類의 方劑는 錢氏가 裁정한 것이 아니라고 懷疑하여 **《直訣》**中 잘못된 점이 섞인 誤集으로 道理가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였다. 劉跋가 撰한 **《錢仲陽傳》**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錢氏는 皇子 儀國公의 **“癩癩”**病을 治療할 때 사용한 方劑가 黃土湯(아마도 **《金匱要略》**의 黃土湯을 말한 듯 함 : 甘草，乾地黃，白朮，附子，阿膠，黃芩，灶中黃土加減)¹³⁶⁾이니 이 또한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³⁷⁾.

V. 結 論

錢乙의 生涯와 學術思想에 대하여 연구하였던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錢乙의 字는 仲陽으로 11C~12C 초반의 北宋時代에 활동하였다.
2. 錢乙의 著書로는 **《小兒藥證直訣》** 및 **《傷寒論指微》**과 **《嬰孺論》**이 있으나 현존하는 醫書로는 **《小兒藥證直訣》**만이 존재한다.
3. 錢乙은 **《內經》**，**《傷寒論》**，**《金匱要略》**，**《神農本草經》** 및 **《太平聖惠方》** 등의 내용을 계승하였으며，40餘年間的 小兒科 臨床經驗을 總結하였으니 **“該括古今，又多自得”**이라 불리었다.
4. 錢乙은 學問함에 있어 어려움을 알면서도 계속 精進하여 오직 이를 業으로 삼았고，옛 것을 模範으로 하되 이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

운 것을 創造하였으며，書籍을 통하여 古今을 충분히 하였고，清涼法을 자주 활용하면서도 脾胃에 주의하였다.

5. 錢乙의 學術思想 特徵은 小兒의 生理病理特徵을 明哲하게 하였고，四診을 合參하되 望診을 더욱 중시하였으며，小兒科의 五臟辨證綱領을 確立하였고，古方에 巧妙하되 과감히 새로운 方을 創製하였다.

6. **《小兒藥證直訣》**에는 咳嗽，傷風，疱疹，吐瀉，疳證，腹痛，腹脹 및 驚風 등과 같은 疾患에 대한 상세한 臨床經驗이 수록되어 있다.

參 考 文 獻

1. 金完熙 外編 : 漢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82.
2.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 中醫歷代各家學說, 年度未詳.
3.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 中國醫史, 1997.
4. 丁奎萬 : 東醫小兒科學, 서울, 행림출판, 1985.
5.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6. 賈維誠 : 三百種醫籍錄, 哈爾濱,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82.
7. 甄志亞 : 中國醫史,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8. 南京中醫學院 校釋 :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9. 北京中醫學院 : 中醫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9.
10. 孫思邈 :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9.
11.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136) 張仲景(蔡仁植 譯) : 金匱要略精解, 大邱, 東洋綜合通信大學教育部, 1974,

p. 100.

135)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p. 80~81.

137)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26~28.

12. 印會河 主編：中醫基礎理論，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9.
13. 任應秋 主編：中醫各家學說，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8.
14. 張介賓：景岳全書，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7.
14. 張仲景(蔡仁植 譯)：金匱要略精解，大邱，東洋綜合通信大學教育部，1974.
15. 錢 乙：小兒藥證直訣，서울，醫聖堂，1994.
16. 陳大舜 主編：中醫各家學說，湖南科學技術出版社，1985.